

妊婦用 속옷의着用 實態 및 맞음새 選好 傾向 研究

韓丞姬 · 金德何 · 石惠晶*

慶熙大學校 衣裳學科 講師 , 慶熙大學校 衣裳學科 研究教授*

A Study on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and Fit Preference Trend of Maternity Underwear

Han, Seung-Hee · Kim, Duck-Ha · Seok, Hye-Ju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urchasing behavior for underwear, with the subjects of pregnant women, and the trend of its fit preference and thereby looks into the practices of their clothing lif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formation of maternity clothing industry, focusing on the underwear development in response to pregnant women's body type features.

The conclusion were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underwear wearing practices for the women in the pregnancy of eight months or longer and those after the delivery within one month showed that about 80-90% of them wore panties or brassieres and about 70% of them did not wear girdles, thus with a lower level for girdles than for panties or brassieres. 2. The surveys of the satisfaction and fit for two designs each with the high wearing frequency did not show any rel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ssessment by the design. Th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by the part with the maternity underwear indicated that in the case of panties the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length as to be long, and also dissatisfied with waist circumference, abdomen circumference, private parts, and groin as to be small, reflecting that the circumference coverage of the panties in the market was not effectively managed.

Key Words : underwear(속옷), maternity(임산부), fit(맞음새)

I. 서론

최근 여성들은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결혼 후에도 사회 진출의 증대와 다양한 생활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임부복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임산부의 체형은 임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임신 말기에 이르면, 특히 가슴이 커지고 배 부위가 심하게 돌출되어 뒤로 젖혀져 보이며, 어깨와 등에 군살이 붙고 상완과 대퇴부가 굽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비만해진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특별한 의복이 필요하고 특히 체형의 변화로 인해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임산부에게 심리적, 미적, 기능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속옷의 착용이 절실하다.

그러나 임부복은 신체적 변화를 잘 고려하지 못하여 신체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임부들이 의복으로 인한 불편함마저도 감수하고 있다¹⁾.

임부복에 관한 연구는 임부복 구매 행동²⁾, 디자인 개발³⁾⁴⁾, 신체 특성⁵⁾⁶⁾⁷⁾, 패턴 개발⁸⁾⁹⁾¹⁰⁾ 임부복의 적합성¹¹⁾, 속옷의 착용감과 착용 효과¹²⁾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었으나 속옷의 착용 실태와 맞춤새에 관해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속옷의 착용실태와 맞춤새 선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체형특성이 반영된 임부용 속옷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속옷(팬티, 브래지어, 거들)의 착용실태를 조사한다.
2. 임산부 속옷(팬티, 브래지어, 거들)의 맞춤새 선호 경향을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설문은 서울에 거주하고 현재 임부용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임신 8개월에서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장소는 서울시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5년 1월 5일부터 3월 4일 사이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령은 31~35세가 52.5%이며 26~30세 28.8%순이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82.5%이며 사무직 10.0%순으로 나타났다. 임신회수는 초산인 경우가 50.0%, 두 번째 38.8%, 세 번 이상 11.3% 순이었다.

2. 조사 내용

임산부 속옷의 디자인 선정 과정은 먼저 시판되고 있는 임부용 속옷 디자인을 시장조사하고, 의상학 박사 과정 이상의 3인에 의해 그 중 디자인과 기능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21-25세	2	2.5	직업	사무직	8	10.0
	26-30세	23	28.8		전문직	3	3.8
	31-35세	42	52.5		공무원	3	3.8
	36세 이상	13	16.3		전업주부	66	82.5
현재 임신 개월 수	8개월	24	30.0	임신 회수	초산	40	50.0
	9개월	17	21.3		두번째	31	38.8
	10개월	13	16.3		세번째 이상	9	11.3
	출산 후 1개월 이내	26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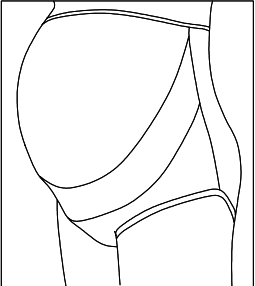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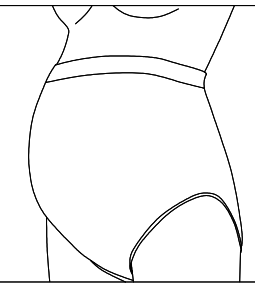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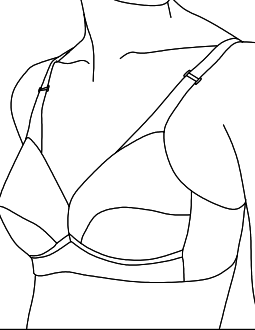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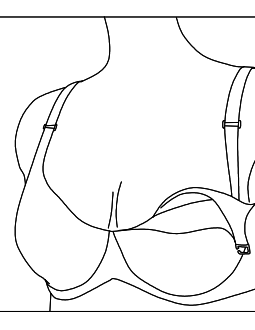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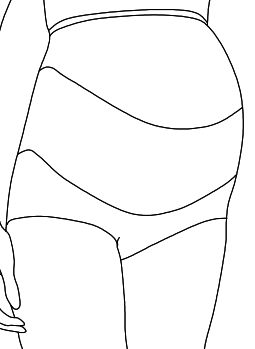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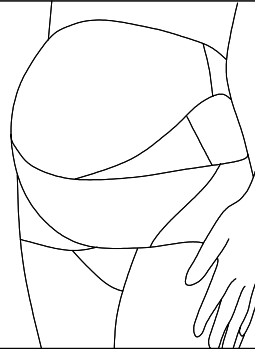
성이 각기 다른 팬티 8개, 브래지어 8개, 거들 9개를 선정하였다. 총 25개의 임부용 속옷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2004년 10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호되어 입고 있는 디자인 2개씩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디자인의 특징과 도식화는 <표 2>와 같다.

설문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임부속옷 착용실태 10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 4문항, 임신전과 현재의 신체 주요 부위 치수 8문항과 각 디자인에 따라 맞

음새, 기능성 문항과 일반적인 만족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맞음새와 기능성 문항은 각 디자인의 특징에 따라 다른 설문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도식화로 각 부위를 나타내 주었다. 각 아이템별 2개의 디자인씩 총 6장의 디자인 중 자신이 입어 본 디자인에 대해서만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에 이용된 임부용 속옷의 도식화와 특징

종류	도식화	특징	도식화	특징
팬티		팬티 A: 허리에는 사이즈 조절용 고무줄이 부착. 배 밑에서 위로 덧단은 대어 놓은 디자인		팬티 B: 봉제선이 없이 짜여진 편직 제품
브래지어		브래지어 A: 보통의 브래지어와 디자인은 같으나 임부용으로 나온 것		브래지어 B: 산전, 산후 겸용으로 수유시 편리하도록 가슴 부위가 밑으로 열리는 디자인
거들		거들 A: 팬티처럼 입으면서 배 밑에서 위로 넓게 덧단을 대어 놓은 디자인		거들 B: 양쪽 날개가 배를 감싸 올리면서 뒤쪽부분의 벨크로로 고정시키는 디자인

<표 3> 임부용 속옷 착용 빈도

착용 빈도	팬티	브래지어	거들
일주일 내내 입는다	53(67.1)	47(59.5)	7(8.9)
일주일에 5-6일	3(3.8)	5(6.3)	4(5.1)
일주일에 3-4일	13(16.5)	10(12.7)	3(3.8)
일주일에 1-2일	3(3.8)	6(7.6)	8(10.1)
임부용 속옷은 입지 않음	7(8.9)	11(13.9)	57(72.2)
Total	79(100.0)	79(100.0)	79(100.0)

III. 결과 및 고찰

1. 임부용 속옷 착용 실태

1) 임부용 속옷 착용 빈도

임부용 속옷의 착용빈도는 <표 3>과 같다. 임산부가 임부용 속옷을 착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임부용 팬티는 91.1%, 임부용 브래지어는 82.1%로 높은 착용률을 보였으나 임부용 거들은 27.8%로 비교적 낮은 착용률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최종명 외 3인의 연구(1998)에서의 30세 이상 여성 거들 착용률(49.4%)보다 낮은 비율로서 임산부의 경우 복부의 압박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비교적 착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임부용 속옷 착용 빈도분석 결과, 팬티의 경우 '일주일 내내 입는다'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일 입는다'(16.5%) 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도 '일주일 내내 입는다'가 59.5%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4일 입는다'(12.7%) 순으로 나타나서 팬티와 브래지어는 비슷한 착용 경향을 나타냈다. 거들의 경우 '입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2.2%로 가장 많았고 거들을 착용하는 경우 '일주일에 1~2회 입는다'(10.1%), 일주일 내내 입는다'(8.9%) 순으로 나타났다

2) 임부용 속옷 최초 착용 시기

임부용 속옷을 처음 착용하는 시기는 2개월부터 9개월 사이로 나타났다. 임신 5개월에 처음 착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임신 6개월 27.4%, 임신 7개월 16.4% 순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임신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임부용 속옷을 착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이희승(1999)의 연구에서도 임부복 최초 착용 시기가 4~5개월에 가장 많았던 결과를 감안할 때 이 시기부터 신체의 변화가 급변하여 이에 적절한 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임부용 속옷 최초 착용 시기

	빈도(명)	비율(%)
2개월	1	1.4
4개월	7	9.6
5개월	27	37.0
6개월	20	27.4
7개월	12	16.4
8개월	5	6.8
9개월	1	1.4
Total	73	100.0

3) 임부용 속옷 소유 별 수

임신 기간 중 임부용 속옷의 소유 별 수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팬티 소유 별 수가 3개라고 응답한 경우는 33.8%로 가장 많았고, 2개 25.7%, 4개 16.2% 순서로 나타났다. 브라지어의 경우는 2개가 54.1%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3개 27.0%, 1개 12.2% 순이었으며, 거들의 소유 별 수는 1개와 2개가 각각 47.8%였다. 전체적으로 팬티와 브라지어에 비해 거들을 소유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들의 착용빈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착용중인 임부용 속옷 치수를 조사한 결과, 팬티의 착용 치수는 90~100호가 전체의 85.7%로 나타났으며, 브라지어는 80~90호가 70.0%로 나타났다.

거들의 경우 90호가 전체의 61.5%로 가장 많았으나 착용빈도가 많지 않아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표 6>.

2. 임부용 속옷 부위별 만족도 및 맞음새

1) 임부용 속옷의 일반적인 만족도

임부용 속옷의 디자인 · 착용 및 관리 등 일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팬티 · 브라지어와 거들에 대해 시판되는 디자인 종류를 조사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착용률이 높은 디자인 각 2개씩을 선정하여 조사범위를 한정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점수를 부여 하였으며 3점 이상의 경우 '만족'으로 해석하였다.

<표 6> 임부용 속옷 치수

호칭	팬티		브라지어		거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75			6	10.5		
80	1	2.0	19	33.3	1	7.7
85	5	10.2	11	19.3	1	7.7
88	1	2.0	1	1.8	1	7.7
90	13	26.5	14	24.6	8	61.5
95	13	26.5	5	8.8	1	7.7
100	16	32.7	1	1.8	1	7.7
Total	49	100.0	57	100.0	13	100.0

<표 5> 임부용 속옷 소유 수

아이템	팬티		브라지어		거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	2	2.7	9	12.2	11	47.8
2	19	25.7	40	54.1	11	47.8
3	25	33.8	20	27.0	1	4.3
4	12	16.2	3	4.1		
5	4	5.4	1	1.4		
6	5	6.8				
7	2	2.7				
8	2	2.7				
10	3	4.1	1	1.4		
Total	74	100.0	74	100.0	23	100.0

<표 7> 임부용 속옷의 일반적인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아이템 일반적인만족도	팬티 A	팬티 B	브래지어 A	브래지어 B	거들 A	거들 B
디자인	3.0 (0.7)	3.1 (0.5)	3.0 (0.7)	3.2 (0.7)	3.0 (0.7)	3.2 (0.7)
체형보완기능	2.9 (0.8)	2.8 (0.6)	3.0 (0.8)	2.9 (0.9)	3.0 (0.8)	2.9 (0.9)
편안함	3.3 (0.8)	3.2 (0.8)	3.2 (0.6)	3.2 (0.6)	3.2 (0.6)	3.2 (0.6)
착용감	3.5 (0.6)	3.1 (0.7)	3.2 (0.8)	3.2 (0.6)	3.2 (0.8)	3.2 (0.6)
가격	2.8 (0.8)	2.9 (0.7)	2.8 (0.7)	2.7 (0.9)	2.8 (0.7)	2.7 (0.9)
사이즈	3.0 (0.7)	3.1 (0.6)	3.0 (0.7)	3.1 (0.6)	3.0 (0.7)	3.1 (0.6)
내구성	3.2 (0.5)	3.0 (0.5)	3.1 (0.6)	3.1 (0.6)	3.1 (0.6)	3.1 (0.6)
소재	3.3 (0.7)	3.3 (0.6)	3.1 (0.7)	3.2 (0.5)	3.1 (0.7)	3.2 (0.5)
유행성	2.9 (0.5)	3.0 (0.5)	2.9 (0.6)	2.9 (0.6)	2.9 (0.6)	2.9 (0.6)
세탁(관리)	3.2 (0.9)	3.4 (0.6)	3.2 (0.6)	3.1 (0.7)	3.2 (0.6)	3.1 (0.7)
위생성	3.2 (0.7)	3.4 (0.6)	3.2 (0.7)	3.1 (0.6)	3.2 (0.7)	3.1 (0.6)

팬티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디자인별 평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팬티 A는 체형 보완 기능과 착용감 · 편안함에서 팬티 B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팬티 A의 경우 허리둘레 조절용 고무줄이 착용감과 편안함 측면에서, 덧대는 부위가 체형보완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팬티 B의 경우 세탁 및 위생성 등과 같은 관리 측면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는 대부분 항목에서 3점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가격과 유행성에서 비교적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 수유시 편리하도록 가슴 부위 개폐가 자유로운 브래지어 B가 브래지어 A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거들 A와 B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배 밑에서 위로 넓게 덧단을 댄 A의 경우 가격(2.8)과 유행성(2.9)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배를 감싸 올려서 뒤쪽에서 벨크로로 고정시킬 수 있는 날개가 부착된 B는 체형보완기능(2.9), 가격(2.7), 유행성(2.9)을 제외한 항목에서 3.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어서 거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유행성에 대한 항목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노력 및 유행경향을 반영한 패션 속옷의 개념에서 임부용 속옷이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모든 아이템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였으나, 가격과 유행성에 있어서는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서는 임부용 속옷이라고 하여 기능성만을 강조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업체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현재 유행하는 디자인 경향을 임부용 속옷에도 반영하여야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임부용 속옷의 디자인별 기능성 평가

팬티와 브래지어 및 거들의 디자인별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팬티 A의 배 밑에서 위로 감싸주는 덧댄 부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9.1%로 나타나 덧댄 부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티 A의 디자인의

특징이 배부분을 덧대어 배를 감싸는 것임을 감안할 때 좀 더 배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성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8>. 봉제선이 없는 환편직인 팬티 B는 봉제선이 있는 일반 팬티에 비해 신축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9>, 브라지어 B의 수유시 개폐가 가능한 디자인의 경우 연결고리 부분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6.1%로 나타나서 연결고리 부분에 대한 불만족 원인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0>.

거들 착용 빈도는 팬티와 브라지어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임부용 팬티가 거들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들 A의 복부를 감싸는 덧단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과 ‘만족’이 73.3%로 나타났으며, 거들 B의 복부를 감싸 올리는 양쪽 날개형은 88.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표 11>, <표 12>. 거들 B가 A에 비해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날개부착형의 거들 B의 경우 해당부위의 신체크기 변화에 맞추어 착의 시 임의로 하복부를 밑에서 위로 조절이 가능하여 신체변화를 커버할 수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팬티 A 덧대는 부분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불만족하다	8	18.6
보통이다	26	60.5
만족하다	9	20.9
Total	43	100.0

<표 9> 팬티 B 편직 신축성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불만족하다	4	11.8
보통이다	20	58.8
만족하다	10	29.4
Total	34	100.0

<표 10> 브라지어 B 연결고리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조금 불편하다	13	36.1
보통이다	11	30.6
조금 편하다	8	22.2
매우 편하다	4	11.1
Total	36	100.0

<표 11> 거들 A 덧단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불만족하다	4	26.7
보통이다	6	40.0
만족하다	5	33.3
Total	15	100.0

<표 12> 거들 B 양쪽 날개의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불만족하다	1	11.1
보통이다	5	55.6
만족하다	3	33.3
Total	9	100.0

3) 임부용 속옷의 부위별 맞춤새

임부용 팬티의 부위별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표 13>은 팬티 디자인에 대한 맞춤새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디자인 A·B에서 모두 배 덮는 길이에 대해 각각 34.9%, 32.4%가 길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응답자의 67.6%가 8~10개월의 임신부로서 임신 후 신체치수 증가가 거의 완료된 시기임을 감안할 때 팬티의 배 덮는 길이가 불필요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리둘레·배둘레와 밑부분에 대해서 모두 약 20~30% 정도가 ‘작다’는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특히 살부분이 작아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는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시판되는 팬티의 둘레부분 치수가 비교적 작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맞춤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리둘레에서 조절용 고무줄이 있는 팬티 A가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팬티 B의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조절용 고무줄의 기능적 측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티 B의 살부분이 ‘작다’는 불만족이 44.1%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제선 없이 환편으로 짜여진 팬티 B가 입체적 형태를 위해 절개 및 봉제선을 사용한 팬티에 비해 살부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부용 브라지어의 부위별 맞춤새를 조사한 결과 <표 14>, 브라지어 A과 B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새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위별 맞춤새를 살펴보면 가슴을 감싸는 정도에 대해서는 디자인 A·B에 대

<표 13> 임부용 팬티의 부위별 맞춤새

빈도(%)

종 류		맞음새	매우 짧다(작다)	조금 짧다(작다)	보통	조금 길다(크다)	매우 길다(크다)
팬티 A [n=43]	배 덮는 길이			9(20.9)	19(44.2)	12(27.9)	3(7.0)
	허리둘레		1(2.3)	15(34.9)	21(48.8)	5(11.6)	1(2.3)
	배둘레			10(23.0)	28(65.1)	5(11.6)	
	살			20(46.5)	16(37.2)	7(16.3)	
	밑부분		2(4.7)	12(27.9)	24(55.8)	5(11.6)	
	팬티 뒷길이		1(2.3)	12(27.9)	28(65.1)	2(4.7)	
	조절용 고무줄*			6(14.0)	27(62.8)	9(20.9)	1(2.3)
팬티 B [n=34]	배 덮는 길이			3(8.8)	20(58.8)	9(26.5)	2(5.9)
	허리둘레		2(5.9)	8(23.5)	21(61.8)	3(8.8)	
	배둘레		1(2.9)	9(26.5)	23(67.6)	1(2.9)	
	살		2(5.9)	13(38.2)	16(47.1)	3(8.8)	
	밑부분		12(35.3)	20(58.8)	2(5.9)		
	팬티 뒷길이			6(17.6)	21(61.8)	6(17.6)	1(2.9)
	신체 밀착도*			8(23.5)	21(61.8)	5(14.7)	

*는 디자인별 기능성에 관련한 문항 임

<표 14> 임부용 브라지어의 부위별 맞춤새

빈도(%)

종 류		맞음새	매우 짧다(작다)	조금 짧다(작다)	보통	조금 길다(크다)	매우 길다(크다)
브라지어 A [n=45]	가슴을 감싸는 정도		1(2.2)	8(17.8)	22(48.9)	14(31.1)	
	끈길이			4(8.9)	31(68.9)	8(17.8)	2(4.4)
	와이어		1(2.5)	13(32.5)	20(50.0)	6(15.0)	
	날개			9(20.0)	28(62.2)	8(17.8)	
	가슴둘레			8(17.8)	30(66.7)	7(15.6)	
브라지어 B [n=36]	가슴을 감싸는 정도		1(2.8)	6(16.7)	19(52.8)	10(27.8)	
	끈길이				29(80.6)	7(19.4)	
	와이어		1(2.8)	6(16.7)	18(50.0)	11(30.6)	
	날개			6(16.7)	21(58.3)	9(25.0)	
	가슴둘레			6(16.7)	26(72.2)	4(11.1)	
	젓혀지는 정도*		1(2.8)	11(30.6)	21(58.3)	3(8.3)	

*는 디자인별 기능성에 관련한 문항 임

해 '작다'(20.0% · 19.5%), '보통'(48.9% · 52.8%), 길다(31.1% · 27.8%)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맞음새에 대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와이어와 날개, 가슴둘레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작다'와 '크다'의 평가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브라지어에 대한 맞음새 불만족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슴부위 치수변화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브라지어 사이즈 및 기능성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임부용 거들의 부위별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표 15> 디자인별 맞음새 평가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이 40~80%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거들 A의 허리둘레 맞음새 평가에서 80.0%가 허리둘레가 크다고 평가하여 응답자의 60%이상이 임신 후기임을 감안할 때 허리둘레 치수가 필요이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살부위에 대한 맞음새 평가는 '작다'는 응답이 많아 팬티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쪽으로 복부를 감싸는 날개형인 거들 B에 대해 11.1%를 제외한 모두가 작거나 크다는 불만족 없이 '보통'이라고 평가하여 배둘레를 커버하는 효과적인 기능으로 평가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임부용 속옷의 착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로서, 신체치수 변화가 뚜렷하고 체형 변화도 일반적인 비만체형과는 구별되는 임신부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능성 임부용 속옷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임신 8개월에서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속옷의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팬티와 브라지어는 약 80~90%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들은 약 70%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팬티와 브라지어에 비해 착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착용빈도가 높은 각 2개의 디자인에 대해 만족도 및 맞음새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별 평가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디자인별 기능성 평가 결과, 팬티의 경우 팬티 A의 덧대는 부위에 대해서는 불만족 평가가 많아서 효능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팬티 B의 환편직 신축성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폐형 브라지어 B의 연결고리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연결고리

<표 15> 임부용 거들의 부위별 맞음새

빈도(%)

종 류	맞음새	빈도(%)				
		매우 짧다(작다)	조금 짧다(작다)	보통	조금 길다(크다)	매우 길다(크다)
거들1 [n=15]	배 덮는 길이		3(20.0)	10(66.7)	2(13.3)	
	허리둘레		1(6.7)	2(13.3)	12(80.0)	
	배둘레	1(6.7)	4(26.7)	9(60.0)	1(6.7)	
	살		8(53.3)	7(46.7)		
	밑부분 크기		6(40.0)	6(40.0)	3(20.0)	
	뒷길이		4(26.7)	10(66.7)	1(6.7)	
거들2 [n=9]	배 덮는 길이		1(11.1)	6(66.7)	2(22.2)	
	허리둘레		1(11.1)	5(55.6)	3(33.3)	
	배둘레			8(88.9)	1(11.1)	
	살	1(11.1)	3(33.3)	4(44.4)	1(11.1)	
	밑부분 크기		3(33.3)	6(66.7)		
	뒷길이		1(11.1)	8(88.9)		

부분에 대한 불만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거들의 경우는 복부를 감싸는 덧단형(거들 A)과 복부를 감싸는 양쪽 날개형(거들 B)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3. 임부용 속옷 부위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팬티는 배 덮는 길이에 대해서 길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배둘레와 밑부분, 살부분에 대해서는 '작다'는 불만족을 나타내어 시판 팬티의 둘레부분에 대한 커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용 브래지어는 '크다', '작다'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개인적인 평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임신부가 임부용 속옷을 착용하였으며, 착용시기가 길고 착용빈도가 높아 임신부의 급변하는 신체변화를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과 맞춤새의 임부용 속옷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다양한 임신부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 실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체 계측과 이를 근거로 한 속옷의 치수 재정립 및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임신 연령이 과거에는 2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결과 30대 이상으로 노령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형변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노력 및 유행경향을 반영한 패션 속옷의 개념에서 임부용 속옷이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수가 적고 조사 대상자의 분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 해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최혜선, 최진희, 김소라 (2000), "수유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918-927.
- 2) 이은영 (1994),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유신 (1992), "임부복의 착시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오선아 (1996), "임부복의 의복 범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대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선명 (1986), "임부복 설계를 위한 연구-임신 경과에 따른 체형 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연순, 박정미, 나미향 (1993), "임부체형의 횡단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pp.628-636.
- 7) 최혜선, 정경화 (1996), "임산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유방부 변화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0(3), pp.438-451.
- 8) 홍정민, 김현숙 (1993), "임신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기본 슬랙스 원형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2(1), pp.39-55.
- 9) 최광희, 함옥상 (1994), "임신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의 기본 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20, pp.139-156.
- 10) 나미향, 김연희, 김미선 (2000), "임산부용 슬랙스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9(4), pp. 117-125.
- 11) 최혜선, 김소라, 최진희 (2000),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p.65-75.
- 12) 최혜선, 이경화 (1991), "시판 임신부용 거들의 착용감 및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pp.11-21.

(2006년 3월 13일 접수, 2006년 6월 16일 채택)